

제144호(2017. 3. 14.)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1
2. 주요 품목별 수입 실태	7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22

감 수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061-820-2173	jkpark@krei.re.kr
내용 문의	지성태	부연구위원	061-820-2304	dongsimjst@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한미 FTA 이행 5년차('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이행 3년차 이후 감소세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과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4년차 대비 3.5% 감소한 71.8억 달러이며, 이행 1년차와 비슷한 수준
- 이행 5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하면서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수출 기반 확충 및 홍보 강화 등으로 4년차 대비 14.4% 증가한 7.2억 달러이며, 발효 이후 연평균 10.3% 증가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3%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8.7%로 상승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4년차 대비 0.3%p 하락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0.9%p 상승
- 이행 5년차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미국의 작황호조 등으로 이행 4년차 대비 증가했고, 축산물, 곡물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
 -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오렌지와 포도 수입이 이행 2년차 수준을 회복하면서 전년 대비 4.8% 증가
 -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치즈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9% 감소
 - 미국산 곡물(식용) 수입액은 옥수수 등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입 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가격은 관세율 인하와 미국 내 수급 변화에 따라 축산물과 과일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각각 약 8.3~19.6%와 15.5~31.0%로 추정
- 한미 FTA 이행 5년차, 수입수요 감소와 무역 전환효과 등으로 FTA 관세인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경기 회복과 교역여건 호전으로 FTA 효과는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더욱이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FTA 수입피해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부문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또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 주도의 농업분야 통상여건 변화에도 기민한 대응 필요

이행 5년차('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 2014년 이후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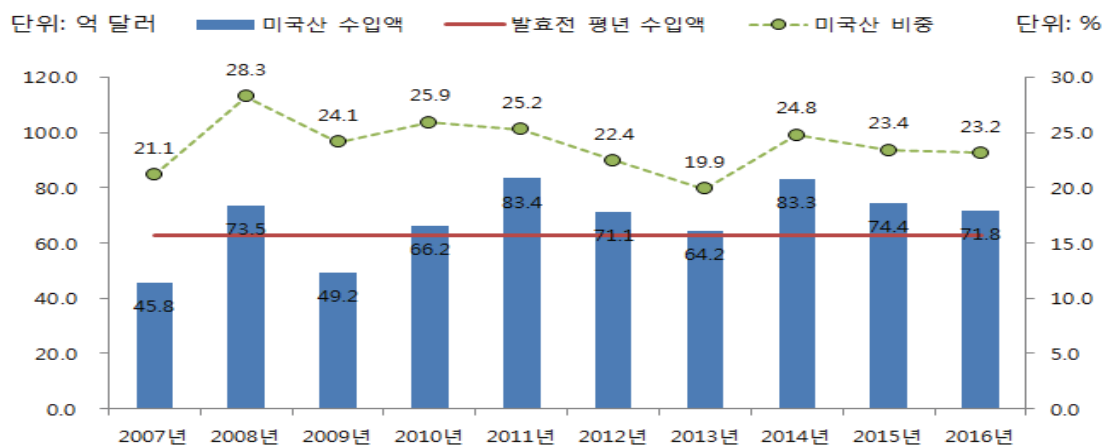
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¹⁾

1.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한·미 FTA 이행 5년차('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하여 이행 1년차와 비슷한 수준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²⁾ 수입액은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전환과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이행 3년차(2014년) 이후 감소 추세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62.9(발효 전 평년³⁾) → 71.1(이행 1년) → 64.2(이행 2년) → 83.3(이행 3년) → 74.4(이행 4년) → 71.8(이행 5년)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무역 전환효과 등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9%p 하락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 25.1(발효 전 평년) → 22.4(이행 1년) → 19.9(이행 2년) → 24.8(이행 3년) → 23.4(이행 4년) → 23.2(이행 5년)

그림 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1)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2월) 기준으로 통계자료(2,875개 HSK코드 기준)를 집계함.
- 2) 본고에서 후술하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축산물'을 의미함.
- 3) 한·미 FTA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수입액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퍽 평균값임.

□ 부류별로 살펴보면, 이행 5년차 미국산 과일·채소와 가공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곡물과 축산물들은 감소

- 이행 5년차 미국산 과일·채소 수입액은 주스류와 버섯류, 채소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선 과일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0.6%)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오렌지(28.8%), 포도(28.0%), 딸기(0.5%), 아보카도(59.8%), 채소종자(5.4%) 등이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체리(△8.3%), 기타과일(△7.7%), 레몬(△7.2%), 토마토(△20.5%), 자몽(△13.2%) 등임.
- 이행 5년차 미국산 가공식품 수입액은 기타 조제 농산품, 당류, 소스류, 식물성 유지류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0.2%)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19.6%), 배합사료(35.0%), 커피(75.0%), 대두유(75.5%), 개사료(5.1%) 등이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사료용 근채류(△9.5%), 면(△42.5%), 에틸알코올(△26.7%), 기타코코아조제품(△9.5%), 초콜릿(△1.8%) 등임.
- 이행 5년차 미국산 곡물 수입액은 서류, 곡류, 채유종실류 등의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3.5% 감소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옥수수(8.8%), 대두(1.1%), 양조박(15.3%), 기타사료식물종자(56.9%), 대두박(319.9%) 등이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밀(△19.8%), 감자(△9.0%), 쌀(△36.9%), 땅콩(△23.6%), 면실(△85.2%) 등임.
- 이행 5년차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즈, 버터 등 유제품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9% 감소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쇠고기(29.1%), 소시지(16.3%), 펍톤(8.8%), 유당(23.2%) 등이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돼지고기(△13.6%), 소원피(△29.4%), 치즈(△32.7%), 멍크 생모피(12.3%), 닭고기(△45.7%) 등임.

표 1. 미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대비 (F/A)	1년차 대비 (F/B)	2년차 대비 (F/C)	3년차 대비 (F/D)	4년차 대비 (F/E)
전체 합계	6,295	7,113	6,419	8,335	7,445	7,182	14.1	1.0	11.9	-13.8	-3.5
농산물	4,344	4,422	3,642	5,090	4,418	4,357	0.3	-1.5	19.6	-14.4	-1.4
- 곡물	2,787	2,375	1,442	2,760	1,947	1,878	-32.6	-20.9	30.2	-31.9	-3.5
- 과일·채소	328	593	616	610	625	628	91.4	5.9	2.1	3.1	0.6
- 가공식품	1,036	1,453	1,584	1,721	1,847	1,850	78.5	27.3	16.8	7.5	0.2
축산물	1,153	1,898	1,925	2,326	2,149	2,108	82.9	11.0	9.5	-9.4	-1.9
임산물	795	793	852	918	878	717	-9.7	-9.5	-15.9	-21.9	-18.3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임.

2) 발효 전 평년 수입액은 2007~2011년 수입액 중 최댓값·최소값을 제외한 올림표 평균값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4% 증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1.2. 對미 농축산물 수출 동향

□ 이행 5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80% 증가하였고, 발효 후 연평균 10.3% 증가

○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행 5년차에는 전년 대비 14.4% 증가

－ 이행 5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은 수출 여건 개선, 수출 시장 개척 및 홍보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EU, 대만,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이어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우리나라 수출 상위국의 수출 증가율: EU(25.9%), 대만(25.4%), 아랍에미리트연합(24.0%), 미국(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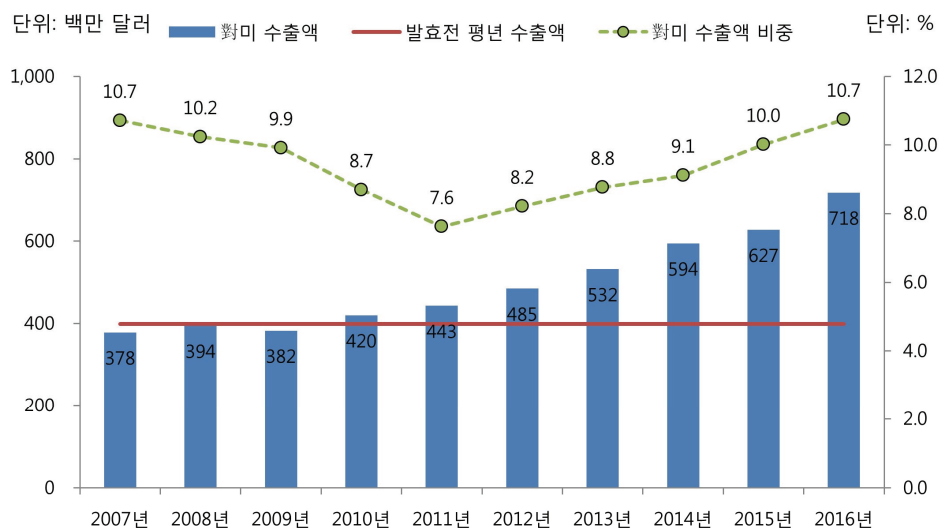
－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억 달러): 4.0(발효 전 평년) → 4.8(이행 1년) → 5.3(이행 2년) → 5.9(이행 3년) → 6.3(이행 4년) → 7.2(이행 5년)

○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에서 對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행 5년차에는 전년 대비 0.7%p 상승

－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 비중(%): 9.5(발효 전 평년) → 8.2(이행 1년) → 8.8(이행 2년) → 9.1(이행 3년) → 10.0(이행 4년) → 10.7(이행 5년)

－ 對미 농축산물 수출은 가공식품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행 5년차 가공식품 수출 비중은 75.6%로 전년 대비 14.2%의 증가율을 보임.

그림 2. 對미 농축산물 수출 동향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부류별로 살펴보면, 이행 5년차 對미 가공식품, 과일·채소, 곡물,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율이 14.2%로 가장 높음.

- 이행 5년차 對미 가공식품 수출액은 연초류, 과자류, 음료, 면류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14.2%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껌(13.5%), 혼합조제식료품(9.5%), 기타음료(10.0%), 라면(20.1%), 비스킷(23.7%) 등이며,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국수(△4.5%), 베이커리반죽(△1.5%), 냉면(△9.9%) 등임.
- 이행 5년차 對미 곡물 수출액은 곡류, 종자류, 전분류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6.2%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밀(6.1%), 팥(2.2%), 쌀(2.4%), 옥수수(4.6%) 등이며,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감자전분(△21.4%), 감자(△65.3%), 들깨(△14.6%) 등임.
- 이행 5년차 對미 과일·채소 수출액은 배, 키위 등 신선 과일류, 단일과일조제품, 채소종자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10.9%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신선 배(17.3%), 채소종자(6.8%), 팽이버섯(5.1%), 단일과일조제품(25.6%), 기타과일(18.6%) 등이며,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고추(△8.0%), 신선 포도(△6.9%), 신선 감귤(△16.8%), 신선 사과(△85.2%) 등임.
- 이행 5년차 對미 축산물 수출액은 육가공품, 유제품, 가죽류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1.0%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펍톤(52.2%), 발효유(4.6%), 연유(19.8%), 가죽(1.8%) 등이며,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젤라틴(△15.7%), 닭고기(△14.5%), 치즈(△47.3%), 돼지고기(△70.3%) 등임.

표 2. 농축산물 부류별 對미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대비 (F/A)	1년차 대비 (F/B)	2년차 대비 (F/C)	3년차 대비 (F/D)	4년차 대비 (F/E)
전체 합계	399	485	532	594	627	718	80.0	48.1	35.0	20.8	14.4
농산물	360	441	473	530	558	634	76.3	43.8	34.0	19.6	13.7
- 곡물	8	9	10	9	9	10	17.2	6.8	-1.5	6.6	6.2
- 과일·채소	58	67	74	74	74	82	41.8	21.6	10.7	10.2	10.9
- 가공식품	294	365	390	447	475	543	84.9	48.8	39.3	21.5	14.2
축산물	22	27	35	36	35	35	63.7	31.3	1.2	-1.9	1.0
임산물	16	16	23	28	34	48	195.7	193.2	105.1	72.4	40.9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임.

2) 발효 전 평년 수출액은 2007~2011년의 수출액 중 최댓값·최소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미국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3%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8.7%로 상승

1.3.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⁴⁾ 활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0.3%p) 하락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가운데 ‘FTA 대상 품목⁵⁾’의 수입액은 62.5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44.5억 달러임.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2.6(‘13) → 63.3(‘14) → 71.6(‘15) → 71.3(‘16)
 - 이행 5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품목 가운데 쇠고기 수입액(10.4억 달러) 비중이 가장 높으며(14.4%), FTA 특혜관세 활용률도 99.9%로 매우 높은 수준
 - 수입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감자(98.8%), 돼지고기(99.8%), 밀(99.5%), 쇠고기(99.9%), 오렌지(90.1%), 체리(99.9%), 치즈(99.6%), 아몬드(99.9%) 등임.

□ 이행 5년차 對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⁶⁾은 전년 대비 0.9%p 상승

- 이행 5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7.2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3.5억 달러임.
 -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46.7(‘13) → 46.2(‘14) → 47.8(‘15) → 48.7(‘16)
 - 수출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50% 이상인 품목은 고추장(54.7%) 국수(58.4%), 간장(76.4%), 느타리버섯(71.7%), 라면(85.3%), 배(71.3%), 팽이버섯(95.5%), 홍삼정(89.9%) 등임.
 - 특히, 간장(13.9%p), 느타리버섯(6.9%p), 라면(10.1%p), 배(10.4%p), 팽이버섯(8.4%p), 홍삼정(23.6%p) 등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4)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FTA 대상 품목 중’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은 품목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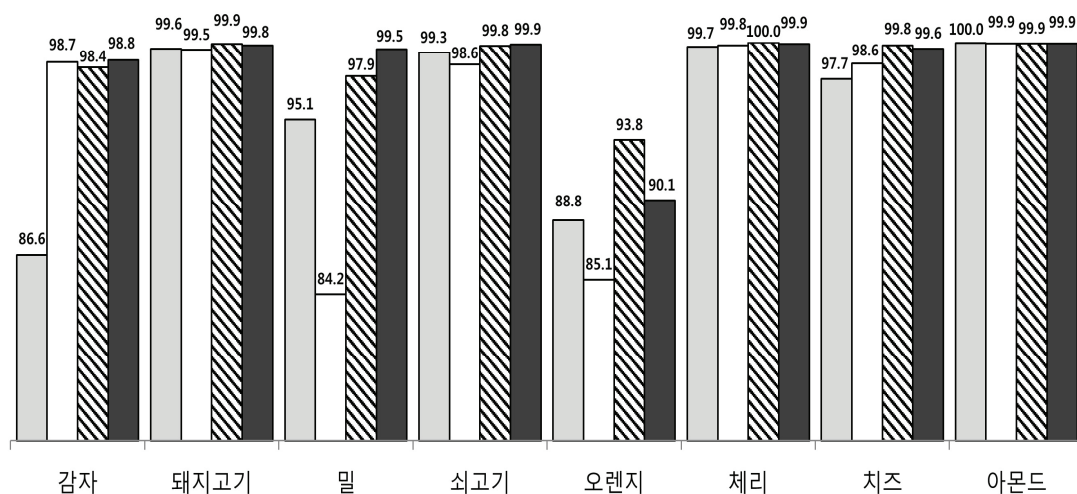
5) FTA 협상결과에 따른 관세인하로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임.

6) 미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①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 ② 수출 품목의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달라 원산지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받기 어렵고, ③ 국내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④ 對미 수출 농축산물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역외 원료 비중이 높아 원산지 증명이 어려움.



그림 3. 2016년 주요 농산물 한·미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단위: %

□ 2013 □ 2014 ▨ 2015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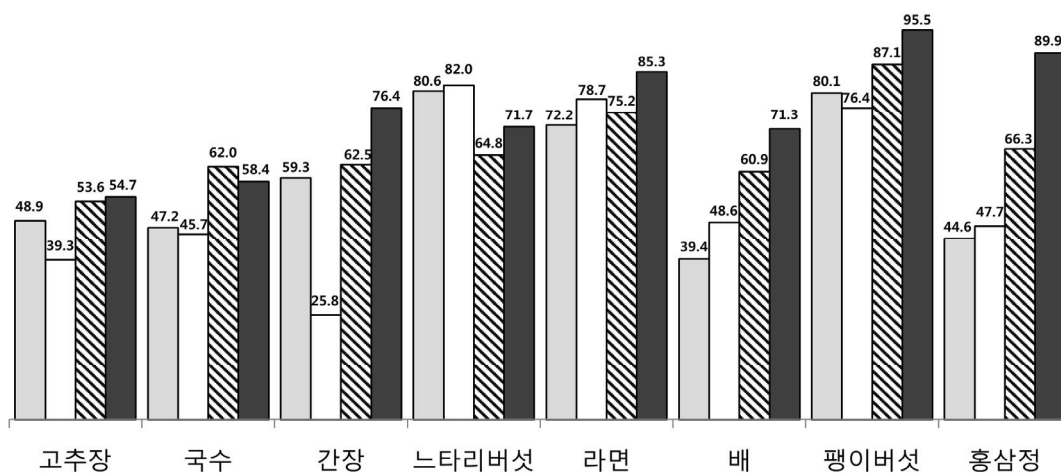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그림 4. 2016년 주요 농산물 한·미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단위: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치즈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9%감소

2. 주요 품목별 수입 실태

2.1. 축산물

□ 이행 5년차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9% 감소

- 최근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분유의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를 보임.
 -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국내 도축두수 감소와 한우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9.1% 증가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국내 도축두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6% 감소하여 FTA 이행 1년차와 비슷한 수준
 - 미국산 닭고기 수입액은 미국의 AI 발생에 따른 국내 반입금지 조치('16년)로 전년 대비 감소
 - 미국산 유제품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 효과(EU산과 뉴질랜드산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표 3.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쇠고기	수입액	301	522	578	764	802	1,035	58.5*	29.1
	수입량	62	106	101	112	115	169	31.3*	46.0
돼지고기	수입액	225	391	313	403	455	393	74.9	-13.6
	수입량	98	131	112	121	151	149	51.8	-1.1
닭고기	수입액	54	91	71	96	16	8	-84.3	-45.7
	수입량	39	54	45	65	11	7	-82.0	-33.9
치즈	수입액	56	141	188	301	251	169	199.8	-32.7
	수입량	13	32	43	64	55	40	207.9	-27.1
분유 (탈지+전지)	수입액	0.9	6.9	24.1	32.7	12.8	12.6	1315.7	-1.7
	수입량	0.3	1.9	6.3	8.0	5.7	6.1	2019.0	7.3
전체 축산물	수입액	1,153	1,898	1,925	2,326	2,149	2,108	82.9	-1.9
	수입량	461	558	518	561	520	546	18.5	5.1

* 쇠고기의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감률은 미국 광우병(BSE) 발병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로 발효 전 평년값에 이상치(Outlier)가 발생함에 따라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1년(수입액 6.53억 달러, 수입량 12.8만 톤) 기준으로 산출함.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수입액(량)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석에 사용한 HSK코드는 냉장 또는 냉동의 것으로 가공(염장, 건조, 훈제, 통조림화 등)은 제외함.

3) 전체 축산물은 신선·가공 축산물을 포함한 총 683개 세번의 합계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46.0% 증가했으나, 미국 광우병 발생 직전('03년)보다 감소

□ 이행 5년차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12.0% 하락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이행 5년차 미국산 주요 축산물(육류 기준) 수입가격은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 시, 쇠고기 9.6%, 돼지고기 19.6%, 닭고기 8.3%의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쇠고기에 대한 FTA 관세율은 한·미 FTA 발효 15년차가 되는 2026년에 모두 철폐될 예정임.
 -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은 이행 5년차('16년)에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고, 냉장은 2021년에 완전 철폐될 예정이므로 축산물 중 관세율 인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 닭고기는 대부분 10년에 걸쳐 관세율이 철폐될 예정이며 냉동닭가슴, 냉동닭날개, 닭고기(500g 이하/미절단)는 12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임.

표 4. 미국산 주요 축산물 관세율 하락효과

단위: 원/kg, %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행 5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10,219	3,676	1,429
	FTA 발효(B)	9,241	2,955	1,310
관세율 하락효과(B/A)		-9.6	-19.6	-8.3
주요 축산물 평균			-12.0	

주 1) 쇠고기는 냉동·냉장 쇠고기와 냉동갈비, 돼지고기는 냉동 돼지고기와 냉장·냉동 삼겹살, 닭고기는 냉동 닭다리·닭가슴·닭날개를 대상으로 분석함.

2) 분석에 사용한 각 수입 품목은 미국산 수입 상위 3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임.

3) 수입가격은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한 부위별 수입액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 이행 5년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46.0% 증가하였으나, 광우병(BSE) 발생 직전('03년) 수준(24만 9천 톤)에 크게 못 미침.

-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과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46.0% 증가한 16만 9천 톤
 - 동 기간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자국 내 소 사육두수 감소와 쇠고기 생산량 감소(18.5%) 등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4.8% 증가하는 데 그침.
-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은 자국 내 쇠고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국내 수입단가 하락과 FTA 관세율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11.1% 하락
 - 미국산 쇠고기 생산량 증가(5.3%)로 국내 수입단가는 동 기간 11.4% 하락
 - 향후 미국 내 소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7년 미국 쇠고기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KREI 농업전망 2017)

표 5.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7,704	7,934	8,536	9,669	10,389	20.0	-11.1
	수입단가(달러/kg)	4.9	5.13	5.79	6.96	7.10	28.4	-11.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3.4	2.6
	관세율(%)	40	37.3	34.6	32	29.3	-33.5	-9.2
호주	수입가격(원/kg)	7,338	8,428	8,217	8,300	9,181	22.2	-2.3
	수입단가(달러/kg)	4.67	5.34	5.36	5.74	6.03	25.3	-3.0
뉴질랜드	수입가격(원/kg)	5,470	6,172	6,232	7,093	6,844	21.9	-2.6
	수입단가(달러/kg)	3.48	3.91	4.07	4.81	4.46	22.7	-4.3
국내	생산량(천 톤)	216	234	260	261	255	1.4	-14.1
수급	1인당 소비량(kg)	10.2	9.7	10.3	10.8	10.9	12.7	5.5

주 1) 쇠고기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장쇠고기(0201300000), 냉동갈비(0202201000), 냉동쇠고기(0202300000) 기준이며, 3개 세번 수입량의 합은 이행 5년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88.2%를 차지함.

2) 수입가격은 위의 3개 세번의 FTA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한 수입액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관세율은 분석에 사용한 3개 세번(냉장·냉동 쇠고기, 냉동갈비) 기준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 이행 5년차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전환 효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이행 5년차 돼지고기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미국산 수입량은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전환 효과로 1.1% 감소한 14만 9천 톤
 -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증가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단가 하락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 감소폭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에는 미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1,174만 톤) 증가로 수입단가 하락이 예상됨(USDA).

※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천 톤):

712(발효 전 평년) → 854(이행 2년) → 830(이행 3년) → 849(이행 4년) → 882(이행 5년)

※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kg)⁷⁾:

19.1(발효 전 평년) → 20.9(이행 2년) → 22.2(이행 3년) → 22.8(이행 4년) → 23.3(이행 5년)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4.9% 상승하였으나, 2014년 냉동 돼지고기(삼겹살)의 관세율 철폐와 그 외 기타 돼지고기류의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 등으로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4.3% 하락 추정

7) 이행 5년차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미국의 AI 발생에 따른 국내 반입 금지조치로 FTA 이행 3년차 이전 대비 큰 폭으로 감소

표 6.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3,088	3,784	3,257	3,610	3,465	2,955	-4.3	-14.7
	수입단가(달러/kg)	2.21	2.89	2.65	3.16	2.94	2.54	14.9	-13.6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25	16	12	8	4	0	-100	-100
EU	수입가격(원/kg)	3,944	4,274	3,979	3,884	3,554	3,376	-14.4	-5
	수입단가(달러/kg)	2.81	3.18	3.11	3.26	2.88	2.73	-2.8	-5.2
국내 수급	생산량(천 톤)	712	750	854	830	849	882	23.9	3.9
	1인당 소비량(kg)	19.1	19.2	20.9	22.2	22.8	23.3	22	2.2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동돼지고기(0203299000), 냉동삼겹살(0203291000), 냉장삼겹살(0203191000)이며, 3개 세번 수입량 비중은 이
행 5년차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의 91.2%를 차지함.

2) 수입가격은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협정관세율은 냉동돼지고기(목살, 잔후지)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 이행 5년차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미국의 AI 발생에 따른 국내 반입금지 조치로 수입선이 브라질 등으로 전환되어 FTA 이행 3년차 이전 대비 큰 폭으로 감소

○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국내 반입금지 조치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미국의 AI 발생 전 수
입량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12월 발생한 AI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었고, 2015년 11월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 2개월 만에 인디애나주에서 AI가 발생하여 재차 수입이 금지되
었다가 2016년 7월에 해제됨.
- 미국산 닭고기 국내 반입금지 조치 해제 이후에도 수입량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
려 전년 대비 33.9% 감소
- 이러한 과정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입선이 브라질로 대부분
전환됨.

※ 이행 5년차 기준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비중은 브라질산이 7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태국산(12.0%), 미
국산(5.5%), 덴마크산(5.0%) 순임.

- 미국산 닭고기 수입단가는 FTA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이와 함께 관세율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
직까지 수입량이 회복되지 않음.

미국산 유제품 수입량은 FTA TRQ 증량과 관세율 인하에도 감소, EU·뉴질랜드로 수입선 전환

표 7.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1,826	2,202	1,983	1,771	1,749	1,310	-28.3	-25.1
	수입단가(달러/kg)	1.36	1.66	1.56	1.48	1.38	1.03	-24.3	-25.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20	18	16	14	12	10	-50.0	-16.7
브라질	수입가격(원/kg)	3,232	3,449	3,255	3,335	3,143	2,499	-22.7	-20.5
	수입단가(달러/kg)	2.40	2.55	2.48	2.64	2.31	1.79	-25.4	-22.5
국내	생산량(천 톤)	407	464	473	528	585	599	47.2	2.3
수급	1인당 소비량(kg)	9.77	11.60	11.50	12.80	13.40	13.90	42.3	3.7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동닭다리(0207141010), 냉동닭가슴(0207141020), 냉동닭날개(0207141030)이며, 3개 세번 수입량 비중은 2015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의 96.1%를 차지함.

2) 수입가격은 냉동닭다리, 냉동닭가슴, 냉동닭날개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협정관세율은 냉동닭다리를 기준으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 이행 5년차 미국산 유제품(치즈, 조제분유) 수입량은 FTA TRQ 물량 확대 및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감소, 수입단가가 낮은 EU·뉴질랜드 등으로 수입선 전환

○ 이행 5년차 미국산 치즈 수입량은 약 4만 톤으로 FTA TRQ 물량(7,879톤)을 초과하였으며, TRQ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18~24%)가 적용됨.

- 체더치즈(0406901000)의 쿼터 외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FTA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철폐되고, 그 외 모든 치즈는 15년간 철폐될 예정임.⁸⁾
- 치즈의 FTA TRQ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량되며, 이행 15년차인 2026년 이후 무한 증량됨.

※ 쿼터 외 물량에 대한 관세율(%)⁹⁾:

10년 철폐: 32.4(이행 1년) → 28.8(이행 2년) → 25.2(이행 3년) → 21.6(이행 4년) → 18(이행 5년)

15년 철폐: 33.6(이행 1년) → 31.2(이행 2년) → 28.8(이행 3년) → 26.4(이행 4년) → 24(이행 5년)

- 이행 5년차 미국산 치즈 수입량은 FTA TRQ 증량과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EU와 뉴질랜드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전년 대비 27.1% 감소
- 반면, EU산과 뉴질랜드산 치즈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39.5%와 6.4% 증가

8) 커드(0406102000), 블루바인(040640000)치즈는 FTA TRQ에 해당하지 않으며 두 품목의 관세율은 10년에 걸쳐 철폐됨.

9) 치즈(기준관세율: 36%)의 경우 HSK 세번인 0406류의 101010, 101020, 101090, 200000, 300000, 902000, 903000, 904000, 909000, 900000, 101000에 대해서는 15년(양허유형 H), 901000에 대해서는 10년(양허유형 G)에 걸쳐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이 철폐됨.

표 8. 국가별 유제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톤

구 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치즈	미국	수입액	56,244	140,596	188,384	301,316	250,749	168,634
		수입량	12,981	31,877	42,530	63,848	54,821	39,966
		수입단가	4.2	4.4	4.4	4.7	4.6	4.2
	EU	수입액	37,623	71,152	74,399	106,268	148,603	172,901
		수입량	5,621	11,468	10,804	15,747	31,966	44,601
		수입단가	6.5	6.2	6.9	6.7	4.6	3.9
	뉴질랜드	수입액	72,091	100,858	102,242	50,522	63,614	55,466
		수입량	18,054	23,908	23,883	10,139	15,643	16,646
		수입단가	4.0	4.2	4.3	5.0	4.1	3.3
분유 (탈지 +전지)	미국	수입액	901	6,889	24,113	32,743	12,776	12,561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699	6,117
		수입단가	3.2	3.5	3.8	4.1	2.2	2.1
	EU	수입액	5,222	33,381	27,573	37,076	23,676	20,438
		수입량	1,542	10,417	6,807	8,312	8,720	8,735
		수입단가	3.8	3.2	4.1	4.5	2.7	2.3
	호주	수입액	18,575	22,562	24,924	24,862	19,537	12,585
		수입량	6,145	6,739	6,566	5,546	7,004	6,095
		수입단가	3.3	3.3	3.8	4.5	2.8	2.1

주: 본 표의 수입량은 품목별 전체 세번(HSK)의 합임. 치즈(14개 세번), 탈지+전지분유(6개 세번)

- 이행 5년차 미국산 탈·전지분유 수입량은 6,117톤으로 FTA TRQ 물량(5,628톤)을 초과한 반면, 조제분유 수입량은 50톤으로 FTA TRQ 물량(788톤)보다 크게 적음.
- 탈·전지분유의 FTA TRQ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176%의 고율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행 5년차 후(‘17년)부터는 매년 3%씩 복리로 증량됨.
- 조제분유의 TRQ 물량은 FTA 이행 10년차부터 무한 증량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됨.

표 9. 미국산 치즈·분유 FTA TRQ 및 수입 동향

단위: 톤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치즈	FTA TRQ	-	7,000	7,210	7,426	7,649	7,879
	수입량	9,307	23,157	33,959	52,885	47,250	35,271
분유 (탈지+전지)	FTA TRQ	-	5,000	5,150	5,305	5,464	5,628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699	6,117
조제 분유	FTA TRQ	-	700	721	743	765	788
	수입량	158	266	141	136	82	50

주: 본 표의 수입량은 FTA TRQ물량으로 수입되는 세번만을 고려한 값임. 치즈(10개 세번), 탈지+전지분유(6개 세번), 조제분유(2개 세번)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오렌지와 포도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4.8% 증가

2.2. 과일

□ 이행 5년차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

- 이행 5년차 미국산 오렌지, 포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체리, 석류, 레몬과 자몽 수입액은 감소
 - 미국산 오렌지는 작황호조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수입액이 큰 폭 증가
 - 미국산 석류 수입액은 국내 소비 감소로 FTA 이행 2년차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
 - 미국산 포도 수입액은 미국의 작황부진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큰 폭으로 증가
 - 미국산 체리와 레몬 수입량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 하락폭이 커 수입액은 감소

표 10. 미국산 과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주요 신선과일	오렌지	수입액	110	211	186	156	163	210	91.4	28.8
		수입량	92,564	166,931	145,741	91,209	102,884	146,483	58.3	42.4
	체리	수입액	30	81	88	123	120	110	267.4	-8.3
		수입량	3,748	9,325	8,936	13,080	12,076	12,387	230.5	2.6
	석류	수입액	10	19	28	24	19	10	0.5	-44.9
		수입량	4,892	8,702	13,596	10,760	8,638	4,333	-11.4	-49.8
	포도	수입액	9	16	20	20	18	23	153.1	28.0
		수입량	3,799	5,951	7,579	7,027	6,034	7,523	98.0	24.7
	레몬	수입액	8	15	24	25	33	31	305.3	-7.2
		수입량	4,584	9,250	12,619	10,706	12,962	13,152	186.9	1.5
	자몽	수입액	7	11	12	14	19	16	145.4	-13.2
		수입량	5,849	8,681	9,487	10,911	14,116	11,821	102.1	-16.3
전체 과일	수입액	216	411	432	421	442	463	114.1	4.8	
	수입량	134,542	227,088	222,165	162,324	179,929	218,786	62.6	21.6	

주 1) 석류는 기타과일 중 HSK 0810909000 기준임. 기타 미국산 신선과일로는 크랜베리, 아보카도, 멜론 등이 있으나 수입규모는 미미함.

2) 전체 과일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의 모든 HSK 세번을 포함한 합계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이행 5년차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24.1% 하락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이행 5년차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 수입가격에 대해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 시, 오렌지 26.7%, 체리 19.4%, 포도 31.0%, 석류 15.5%, 레몬 23.1%, 자몽 23.1%의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전년 대비 42.4% 증가하여 FTA 이행 2년차 수준 회복

표 11.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 관세율 하락 효과

단위: 원/kg

구 분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
이행 5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2,469	12,773	5,120	3,965	3,532	2,094
	FTA 발효(B)	1,810	10,300	3,531	3,350	2,717	1,611
관세하락효과(B/A)		-26.7	-19.4	-31.0	-15.5	-23.1	-23.1
신선과일 평균(%)		-24.1					

주: 각 수입 품목은 신선과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이행 5년차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전년 대비 42.4% 증가하여 FTA 이행 2년차 수준(14만 6천 톤)을 회복함.

-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FTA 이행 3년차에 캘리포니아지역 냉해와 병충해로 인한 작황부진, 이행 4년차에 서부지역 항만노조 파업에 따른 선적 지연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행 5년차에 FTA TRQ 증량 및 작황호조로 수입이 증가하여 14만 6천 톤 기록
 - FTA 발효 이전인 2004년의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이미 14만 8천 톤을 기록한 바 있음.

※ FTA TRQ 물량(톤): 2,732(이행 4년차) → 2,814(이행 5년차)

※ 미국(캘리포니아) 생산량: 1,944천 톤('15) → 2,168천 톤('16)(UDSDA NASS, '17.1.), 비발렌시아 기준, 1Box=80파운드

- 이행 5년차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1.6달러/kg → 1.4달러/kg)과 관세율 인하(15%→10%)로 전년 대비 12.1% 하락한 것으로 추정

표 12.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3~8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수입가격(원/kg)	1,944	1,860	1,741	2,166	2,059	1,810	-6.9	-12.1
수입단가(달러/kg)	1.2	1.3	1.3	1.7	1.6	1.4	22.8	-10.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50	30	25	20	15	10	-80.0	-33.3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오렌지(08051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오렌지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3~8월까지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는 계절관세가 적용(관세는 6년에 걸쳐 철폐 예정).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통계청.

미국산 체리와 포도 수입량은 대체로 미국 주산지 작황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

□ 이행 5년차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전년도에 이은 작황부진 등으로 소폭(2.6%) 증가에 그침.

- 미국산 체리에 대한 기준관세율(24%)은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수입량은 대체로 미국 주산지의 작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행 5년차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작황이 역시 부진했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1만 2천 톤)이며, 작황이 양호했던 이행 3년차 대비 5.3% 감소

※ 미국(워싱턴) 생산량: 21만 톤('15)→ 19.5만 톤('16)(UDSDA NASS, '16. 6.)

-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은 FTA 발효 이후 무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단가와 환율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이행 5년차 미국산 체리 수입단가가 전년 대비 10.6% 하락했고 환율은 2.6% 상승하여 수입가격이 8.3% 하락함.

표 13.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수입가격(원/kg)	11,760	9,780	10,724	9,909	11,230	10,300	-12.4	-8.3
수입단가(달러/kg)	8.4	8.7	9.8	9.4	9.9	8.9	5.0	-10.6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24	0	0	0	0	0	-	-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체리(080929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체리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FTA이행지원센터(2016).

□ 이행 5년차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계절관세율이 무관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2년차 수준(7천 500톤)에 그침.

-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수입단가 하락과 관세율 인하로 전년 대비 24.7% 증가
 - ※ 미국산 포도 계절관세율(%): 45(기준관세율)→ 0(이행 5년차)
- 미국산 포도에 대한 관세율은 이행 5년차('16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었으나 계절 관세 적용시기(10월 16일~익년 4월) 수입단가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가격은 전년대와 비슷한 수준 유지
 - ※ 미국산 포도는 주로 6~12월에 수입되며, 특히 10~11월에 집중됨.



미국산 곡물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

표 14. 미국산 포도 수입가격(10월 16일~익년 4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관세 유형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수입가격(원/kg)	3,902	일반관세	3,978	3,906	4,158	4,580	2,785	-28.6	-39.2
		계절관세	3,780	3,467	3,449	3,540	3,531	-9.5	-0.2
수입단가(달러/kg)	2.4	일반관세	2.5	2.6	2.9	3.0	1.8	-24.0	-39.5
		계절관세	2.7	2.7	2.9	3.0	3.0	26.9	3.1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45.0	일반관세	42.3	39.7	37.0	34.4	31.7	-29.6	-7.8
		계절관세	24.0	18.0	12.0	6.0	0.0	-	-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포도(08061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포도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미국산 포도는 10월 16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되며, 페루는 2011년부터 수입실적이 있음.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FTA이행지원센터(2016).

2.3. 곡물류(식용)

□ 이행 5년차 미국산 곡물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으며, FTA 발효 전 평년과 비교해도 큰 폭(32.6%)으로 감소

- 이행 5년차 미국산 전체 곡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수입액은 오히려 3.5% 감소
 - 미국산 옥수수(식용) 수입액은 전년 대비 26.7% 증가했으나 작황부진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단가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¹⁰⁾되어 발효 전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
 - 미국산 밀(식용) 수입액은 수입량이 소폭(1.5%) 감소한 가운데 수입단가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18.1%)으로 감소하였으며, FTA 발효를 전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량 유지
 - 미국산 대두(식용) 수입액은 전년 대비 22.0% 감소하였으나 FTA TRQ 증량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큰 폭(62.0%)으로 증가

10) 식용 옥수수의 주요 수입선은 미국에서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으로 전환됨.

미국산 곡물 수입은 대체로 FTA TRQ 물량에 좌우되고 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효과 미미함

표 15. 미국산 주요 곡물(식용)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주 요 곡 물	옥수수	수입액	315	49	38	282	110	139	-55.8	26.7
		수입량	1,141	115	87	1,021	462	660	-42.2	42.9
	밀	수입액	389	437	428	381	355	291	-25.1	-18.1
		수입량	1,197	1,210	1,135	1,106	1,134	1,117	-6.7	-1.5
	대두	수입액	77	129	160	169	159	124	62.0	-22.0
		수입량	134	191	212	233	252	225	68.3	-10.7
전체 곡물		수입액	2,787	2,375	1,442	2,760	1,947	1,878	-32.6	-3.5
		수입량	9,222	6,493	2,857	8,412	6,338	7,131	-22.7	12.5

주: 전체 곡물은 미국산 곡물의 전체 수입량이며, 각 품목별 수입량은 식용(종자, 사료 등을 제외) 기준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이행 5년차 미국산 곡물 대부분이 FTA TRQ 물량으로 수입되고 FTA 발효 전 기준 관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세율 하락효과가 작음.

- 이행 5년차 미국산 주요 곡물 수입가격은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 시, 옥수수 1.7%, 밀 1.8%, 대두 0.9%의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옥수수의 경우 팜콘용(1905902000)과 기타옥수수(1005909000) 수입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ASG)¹¹⁾로 제한이 이루어짐. ASG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모든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가 부과됨.

※ 팜콘용 ASG 발동수준:

단위: 톤, %

이행연도	1	2	3	4	5	6	7	8
ASG 발동수준	5,112 (2,556)	6,390 (3,994)	7,668 (5,751)	8,946 (7,828)	10,224 (해당 없음)	10,735	11,246	해당 없음
관세율	601 (55)	572 (40)	544 (25)	515 (15)	486 (해당 없음)	365	321	0

주: 괄호 안 수치는 중간 ASG 물량 및 관세율임.

※ 기타옥수수 ASG 발동수준:

단위: 톤, %

이행연도	1	2	3	4	5	6	7	8
ASG 발동수준	187,547 (93,774)	234,434 (146,521)	281,321 (210,990)	328,207 (287,181)	375,094 (해당 없음)	393,849	412,603	해당 없음
관세율	313 (55)	298 (40)	283 (25)	268 (15)	253 (해당 없음)	190	167	0

주: 괄호 안 수치는 중간 ASG 물량 및 관세율임.

11) FTA 발효 5년차 내에는 주 ASG 물량과 중간 ASG 물량으로 구분하여 발동되며, 발효 5년차부터는 주 ASG 물량으로만 발동됨.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대비 42.9% 증가하였으나, FTA 발효 전 평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침

- 대두의 경우 2013년 이후 FTA TRQ¹²⁾ 물량('16년 26,523톤)과 WTO 시장접근 물량(C/S) 185,787톤¹³⁾을 초과하여 수입됨. 그러나 WTO 기본물량 외에 매년 약 2만 9천 톤이 추가 증량되어 고율관세(487%)가 부과되는 물량은 없음.

표 16. 미국산 주요 곡물(식용) 관세율 하락효과

단위: 원/kg

구 분		옥수수	밀	대두
이행 5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252	308	671
	FTA 발효(B)	248	303	666
관세하락효과(B/A)		-1.7	-1.8	-0.9
주요 곡물 평균(%)			-1.6	

주: 각 수입 품목은 식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이행 5년차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대비 42.9% 증가했으나 여전히 FTA 발효 전 평년보다 큰 폭(42.2%)으로 감소한 수준

-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FTA 이행 초기('12~'13년) 주산지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급감한 이후 이행 3년차에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가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다시 수입선 이 전환되었으며, 이행 5년차 수입량은 전년 대비 42.9% 증가했으나 여전히 발효 전 평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수입선은 대부분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으로 전환됨.
 - 이행 5년차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0.21달러/kg로 러시아(0.19달러/kg), 브라질(0.20달러/kg)과 아르헨티나(0.18달러/kg)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미국산 옥수수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과 관세율 인하 등으로 발효 전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25.4%와 9.0% 하락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수입단가 기준으로 미국산 옥수수가 FTA 발효 전 대비 23.5% 하락한 가운데 브라질산(34.3%), 러시아산(86.1%), 아르헨티나산(65.9%)은 더 큰 하락폭을 보임.

12) FTA TRQ는 식용콩을 대상으로 한 시장접근수입물량을 의미하며, 대부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를 통해 민간수요업체가 FTA이행물량을 배정받아 수입하는 방식임.

13) 2004년 이후 WTO C/S물량은 185,787톤으로 일정하나 매년 2만 9천 톤가량 증량되어 수입이 이루어짐.

표 17. 미국산 옥수수(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¹⁾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국	수입가격(원/kg)	332	481	479	297	272	248	-25.4	-9.0	
	수입단가(달러/kg)	0.28	0.42	0.44	0.28	0.24	0.21	-23.5	-11.4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팝콘용 ASG	물량(톤)	-	5,112	6,390	7,668	8,946	10,224	-	14.3
		관세(%)	630	601	572	544	515	486	-22.9	-5.6
	기타 옥수수 ASG	물량(톤)	-	187,547	234,434	281,321	328,207	375,094	-	14.3
		관세(%)	328	313	298	283	268	253	-22.9	-5.6
브라질	수입량(천 톤)	1,141	115	87	1,021	462	660	-42.2	42.9	
	수입량(천 톤)	139	419	694	236	390	323	132.1	-17.3	
	수입단가(달러/kg)	0.30	0.30	0.32	0.26	0.21	0.20	-34.3	-8.3	
러시아	수입량(천 톤)	0	0	0	225	372	942	-	153.0	
	수입단가(달러/kg)	1.40	0.00	0.00	0.26	0.21	0.19	-86.1	-7.2	
아르헨	수입량(천 톤)	4	127	117	1	118	201	4867.2	70.9	
타나	수입단가(달러/kg)	0.54	0.31	0.30	0.95	0.22	0.18	-65.9	-14.7	

주 1) 수입가격은 분석 대상은 기타옥수수(1005909000), 팝콘용(1005902000), 옥수수가루(1102200000) 등 5개 세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 기타옥수수, 팝콘용, 옥수수가루 등 5개 세번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ASG 물량 미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입옥수수에 대한 WTO TRQ 물량과 FTA TRQ 물량이 모두 미국산에 배정되었다는 가정하에 수입가격을 산출함.
 4) 수입량은 수입가격 분석에 사용한 5개 세번의 합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 이행 5년차 미국산 밀 수입량은 FTA 발효 전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소폭(1.5%) 감소

- 미국산 밀 수입량은 수입단가와 관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한 111만 7천 톤
 - 최근 주요 밀 수출국의 풍작으로 생산량과 이월재고량이 증가하여 수입단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산 수입단가의 발효 전 평년 대비 하락폭(19.9%)은 호주산(22.7%)과 캐나다산(37.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이행 5년차 미국산 밀의 수입단가는 0.26달러/kg로 호주산(0.25달러/kg)보다는 높고 브라질산(0.27달러/kg)보다는 낮음.
- 미국산 밀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과 관세율 인하 등으로 발효 전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21.5%와 14.7% 하락한 것으로 추정
 - 미국산 옥수수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16.8% 하락했고, 호주산과 캐나다산은 각각 12.5%와 19.5% 하락함.
 - 미국산 식용 밀 대부분의 기준관세율(제분용 1.8%)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관세율이 수입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FTA TRQ 증량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0.7% 감소

표 18. 미국산 밀(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 국	수입가격(원/kg)	386	407	413	363	355	303	-21.5	-14.7	
	수입단가(달러/kg)	0.33	0.36	0.38	0.34	0.31	0.26	-19.9	-16.8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관세율(%)	제분용	1.8	0	0	0	0	0	-100.0	-
		기타	1.8	0	0	0	0	0	-100.0	-
	수입량(천 톤)	1,197	1,210	1,135	1,106	1,134	1,117	-6.7	-1.5	
호 주	수입가격(원/kg)	387	383	434	361	329	295	-23.8	-10.2	
	수입단가(달러/kg)	0.33	0.33	0.39	0.34	0.29	0.25	-22.7	-12.5	
	수입량(천 톤)	840	1,028	954	1,023	1,074	1,052	25.2	-2.1	
캐 나 다	수입가격(원/kg)	486	484	430	389	381	315	-35.3	-17.5	
	수입단가(달러/kg)	0.43	0.42	0.39	0.37	0.34	0.27	-37.5	-19.5	
	수입량(천 톤)	167	179	170	167	202	148	-11.0	-26.4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메슬린 외 기타(1001992090), 밀가루(1101001000) 등 14개 세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 메슬린 외 기타, 밀가루 14개 세번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수입량은 밀 수입가격 분석에 사용한 14개 세번의 합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 이행 5년차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0.7% 감소

-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수입단가 하락 추세, FTA TRQ 증량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발효 전 평년 대비 68.3% 증가한 반면, 국내 전체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0.7% 감소한 22만 5천 톤 기록

- 식용 대두의 용도별 주요 수입대상국이 상이하여 수입전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미국에서는 주로 식품가공용 대두가 수입되고, 중국에서는 주로 콩나물용 대두가 수입됨.

※ 한·미 FTA TRQ 물량(톤): 1만(‘12) → 2만(‘13) → 2만 5천(‘14) → 2만 5,750톤(‘15) → 2만 6,523톤(‘16)

- 미국산 대두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 및 FTA TRQ 물량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47.0% 하락한 것으로 추정
 - 단, 기준관세율이 낮고 대부분이 FTA TRQ 물량 내에서 수입되어 미국산 대두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변동에 의해 좌우될 것임.

표 19. 미국산 대두(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발효 전 평년 대비 (F/A)	4년차 대비 (F/E)	
미 국	수입가격(원/kg)	1,257	795	862	796	744	666	-47.0	-10.6	
	수입단가(달러/kg)	0.60	0.68	0.75	0.73	0.63	0.55	-2.7	-12.7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3.4	2.6	
	FTA	HS1201(톤)	-	10,000	20,000	25,000	25,750	26,523	-	3.0
	TRQ	관세율(%)	5	0	0	0	0	0	-100.0	-
중 국	수입량(천 톤)	134	191	212	233	252	225	66.8	-10.7	
	수입가격(원/kg)	858	1,143	1,265	1,174	1,392	1,180	37.5	-15.3	
	수입단가(달러/kg)	0.64	0.97	1.10	1.06	1.18	1.02	57.9	-13.5	
	수입량(천 톤)	153	124	55	75	27	37	-76.0	37.4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콩나물용(1201903000), 기타(1201909000), 대두로 만든 것(120810000)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 콩나물용, 기타, 대두로 만든 것(분쇄)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수입량은 대두 수입가격 분석에 사용한 3개 세번의 합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수입선 전환과 수입수요 감소로 FTA 관세인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수출 특혜관세 활용 제고 노력으로 수출 증가는 큰 성과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한미 FTA 이행 5년차('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무역 전환효과와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FTA 효과가 상쇄되어 오히려 감소세를 보임.

○ 이행 5년차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가운데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감소폭(3.5%)은 더 크게 나타남.

– 특히 미국산 곡물과 축산물은 수입선 전환효과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과일·채소와 가공식품 수입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침.

○ 물론 쇠고기, 오렌지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FTA 효과보다도 국내 수급상황과 미국 주산지 작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국내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했으나 과거 미국 광우병 발생 직전('03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 작황호조로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증가했으나 FTA 발효 전('04년)과 발효 초기('12~'13년) 수준과 비슷함.

○ 그러나 향후 국내외 경기가 회복되고 교역여건이 호전될 경우 FTA 효과가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한편, 다수의 FTA가 동시에 이행되는 상황에서 무역 전환효과와 창출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입구조 변화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큼.

□ 對미 농축산물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주도

○ 이행 5년차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6.7% 증가한 가운데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 증가폭(14.4%)이 훨씬 크게 나타남.

실효성 있는 대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부문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필요

- 단, 수출품목이 가공식품에 집중되어 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은 향후 농축산물 수출 증가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이행 5년차 對미 수출 농축산물 가운데 가공식품의 비중은 75.6%에 달하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8.7% 수준

□ 한·미 FTA 이행과 미국발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부문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브렉시트 이후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시장개방화를 표방하는 FTA 중심의 기존 통상 전략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미국의 농업 관련 통상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기 체결 FTA에 대한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에 적극 대응할 필요
- 한편,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 및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FTA 효과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여 농업부문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함.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부사업별 성과평가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



KREI 농정포커스 제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7. 3. 14.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김수석, 마상진, 황윤재, 이대섭, 지인배, 심재현, 구자춘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8-89-6013-838-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